

윤성진의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의 미학



심상용 교수 (미술사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심상용(동덕여대 미술평론)교수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각각 회화와 서양화를 전공했다. 1989년 도블해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와 D.E.A.를,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1994)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아트 버블』(2015.리슨투더시티), 『예술, 상처를 말하다』(2011.시공사), 『시장미술의 탄생』(2010.아트북스), 『속도의 예술』(2008.한길사), 『천재는 죽었다』(2003.아트북스), 『명화로 보는 인류의 역사』(2000.영교) 등이 있으며, 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기독교미술협회 미술이론분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미술비평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미술전문지 <계간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의 발행과 편집에 관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에 재직 중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사방 벽과 중앙 테이블에 십자가로 가득한 조각가 윤성진의 이번 전시 주제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온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에는 생전의 폴 고갱이 그토록 답하고자 했지만 결국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있다.

1897년 폴 고갱(Paul Gauguin)은 물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do we come from, What we are, Where are we going)” 하지만 고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해,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의 시발점과 현재, 그리고 종착역에 대해 자문했던 그해, 그는 모아두었던 비소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의 삶도 이 실패했던 자살보다 결코 덜 비참하지 않았다. 그가 쓴 시(詩)들에 등장하는 ‘짜구려 포도주’와 ‘목을 맨 사람의 집’, ‘분노를 수거하는 여

성' 등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비유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키즈 제도의 도미니카에 정착한지 2년째인 1901년 숨을 거두었을 때, 지역의 주교는 그의 사상과 품행을 들어 교회장을 거부했고, 그의 몇몇 그림들은 음란하다는 교회의 판단에 의해 불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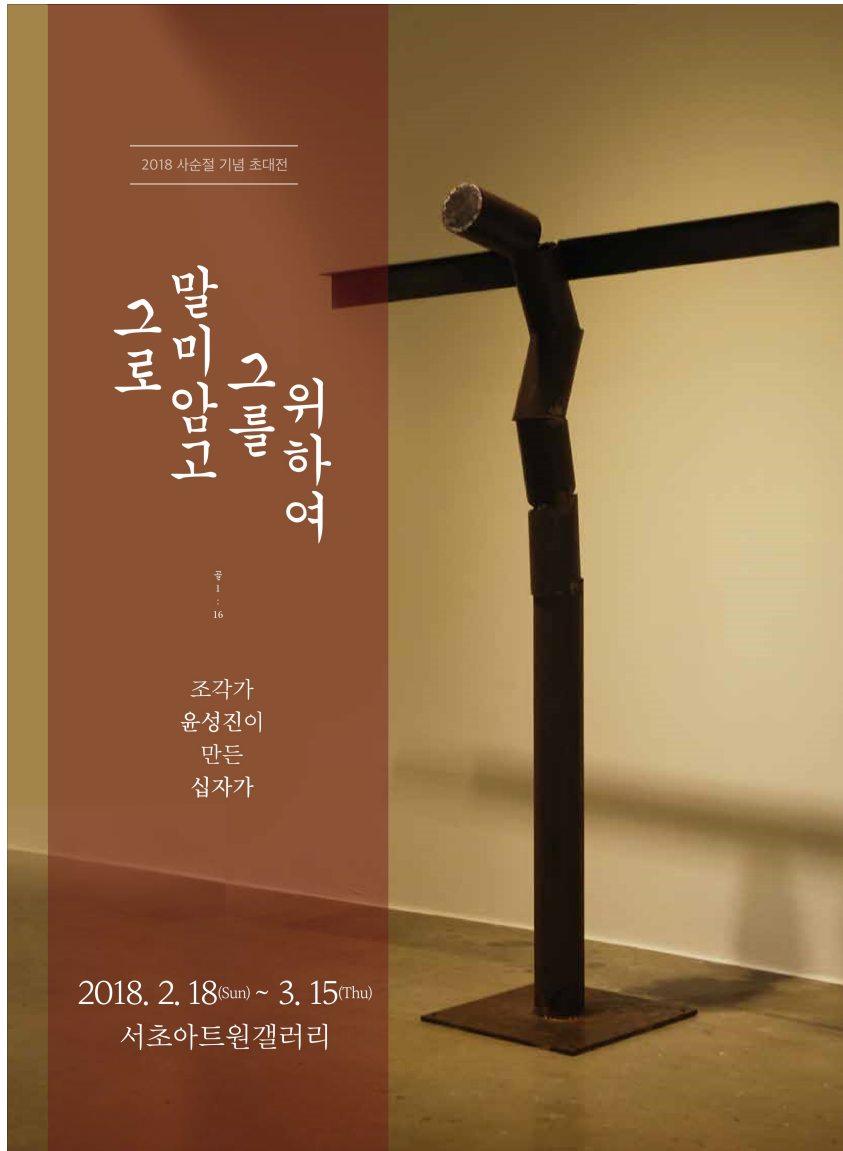
“내 가슴은 한낱 먼지 나는 샘/ 떨어진 문물은 이미 냄새가 난다./ 탐스러운 내 마음의 가지 위에서/ 전율하던 물기 어린 사고에서/이제 어이할거냐” 자신의 시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에서 고갱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은 탄식한다. 톰슨에 의하면 멋져 보이는 철학적 사유의 끝은 슬픈 탄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오만의 결말은 '색 바랜 주검'과 '더럽혀진 대지'일 뿐이다. 이는 다른 어떤 톰슨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다.

톰슨의 삶도 고갱의 것만큼이나 녹록치 않았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낸 후에도 늘 빈곤과 결핵이 동반됐고,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고자 했던 꿈도 무산되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도, 마지막으로 군인이 되고자 했던 꿈도 좌초되고 말았다. 가톨릭 잡지의 편집자 메넬 부처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도와줄 때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말하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런던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자요 아편중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천국의 사냥개>에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녹아 있다.

기이하고 가련한 하찮은 것이
왜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부질없는 일을 볼 뿐인 것을.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적이 있어야 하나니
한낱 한 덩이 진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가련하다 네 무지여
사랑받기에 보잘 것 없음을 모르는!
...
사랑하는 이여, 눈 감고 떠느냐
내가 찾는 이, 그가 나로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 이제 사라졌으나
누구라서 사랑하겠는가, 하잘 것 없는 너를
나, 나 말고 누구겠는가.

톰슨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모펫 코트리(R. Moffat Gautrey)의 표현을 빌자면, 그 엄청난 연인(This tremendous Lover)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었음을 시인했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새로운 호흡과 감각을 갖게 되었노라 고백한다.

조각가 윤성진 역시 이 엄청난 연인에 체포되는 순간- 이 사건은 1997년 그가 파리에 거주할 때 일어났다-, 그 운명의 현장인 십자가를 결코 등질 수 없었다. 이때부터 윤성진의 조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단지 그가 부단히 십자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나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는 그가 겪은 급진적인 미학적 도약의 맥락에서 보면 지엽적인 요인일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조각이 더는 저자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33길 11 서초교회 2층 서초아트원갤러리 Tel.02)591-0537 관람안내. 화~주일 오전 11시~오후6시(무료)

러나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사로잡은 그 엄청난 연인이기 때문이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가 '윤성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전시 제목에서 빼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리라. "윤성진이란 이름을 십자가와 함께 넣으려니 십자가 앞에서 하찮은 미물이 나서는 것 같은" 민망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은혜로 주신 약간의 재능을 부려 십자가를 만드는 주제에 이름 석 자를 끼워 넣다니 예수님께 송구하기가 그지없다."(윤성진)

윤성진은 깊은 기독교의 영성이 담겨있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고 만나는 새로운 십자가를 만드는 길로 들어섰다.

십자가상의 미학

이런 맥락에서 윤성진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근현대 미학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날, 그 전복과 관련한 급진적인 미학적 선언의 산물이다. 이 ‘십자가상의 미학’은 전복적이고 혁명적이다. 윤성진은 하늘의 엄청난 연인에 체포당한 뒤,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기독교를 ‘껍데기만 남은 유적’으로 간주하는 유럽의 근현대 철학, 문화, 예술이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빈털터리라는 사실 말이다. 십자가상의 미학에서 예술가는 인문주의-낭만주의의 DNA를 품은 ‘작은 신’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예술창작행위 역시 소영웅주의적 주체가 펼치는 장이 아니다. 예술가와 그의 예술 하는 행위는 조금도 특권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독교 신앙과 예술의 일치, 그 중심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한 예술의 깃발을 세우는 운동을 꿈꾸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도 했던 것이다.

십자가상의 미학과 서구의 모더니즘 미학은 마치 양과 염소처럼 양립할 수 없다. 서구 모더니즘 미학의 맥락에서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차단하고 진지한 사고를 중단시키며 실생활의 확고한 진실과는 유리된 알팍한 환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일 뿐이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후하게 쳐박아 박물관을 장식하는 데 유용한 ‘철지난 아이콘’ 이상이 아니다. 윤성진이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듯, 바탕 자체가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기도 한 작금의 글로벌 현대미술 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칫 웃음거리

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이미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의 미학에서 예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에 의한 ‘소명의 행위’이다. 창세기 1:27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밝힌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교의 성서신학자인 제임스 바(James Barr, 1924~2006)는 성경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소명’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지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명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톨라이트(N. T. Wright)의 생각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특징적이거나 특별한 능력 또는 특성이 아니라, 소명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 문제의 소명은 창조주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특별한 역할을 맡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미학, 곧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의 소명의 미학은 자신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데, 드러나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윤성진의 십자가상들은 하늘의 연인의 구속으로 인해, 이제 다스림의 소명에 부응하는 예술로 부단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의 값진 산물들이다. 